‘질문·토론’ 있는 승가교육 어떻게?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 4월 21일 개최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도

승가교육 내 질문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되는 교육방법 도입에 대해’를 주제로 교수아사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왜 질문과 토론식 교육인가’를 주제로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무애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해인사승가대학장)·자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중앙승가대 교수)·현견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강사)·원영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의 ‘질문과 토론’식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은 “부처님의 대기설법, 방편시설, 차제설법 등은 최근의 소통과 평등성, 양방향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승가교육에서 일방적인 지식전달이나 암기교육만이 아니라 소통과 양방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 되는 교육방법의 도입 방안을 각 교육기관별로 모색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은 포럼에 앞서 포럼에 앞서 2017년도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개최한다. 신규 교육아사리는 초기불교 분야에 송탁 스님이, 대승불교 분야에는 선응·현서·진욱 스님이, 한문불전 분야에는 신경·선암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는 혜장·재마 스님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올해 신규·재위촉되는 교육아사리는 총 44명으로 향후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4월 7일,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목포 신항에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엔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등이 함께했다. 스님들은 세월호 앞에서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 및 미수습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발원문을 낭독하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및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서 미수습자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종단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가족 포교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교원, 제71차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4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내 가족 전법하기-가족포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7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포교 방안 중 하나로 가족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불자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 분석 및 가족법회 대안 마련 모색이 이뤄진다.

먼저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교수의 ‘현시대 가족포교 필요성과 대책’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의 ‘가족법회 모범사례를 통해 본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며 봉불사 주지 지오 스님, 최미선 동련 국장,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 이기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분담금 부과체계 전면개편 ‘눈앞’

조계종 재무부, 분담금납부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996년 제정된 조계종 ‘분담금납부에 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와 함께 별도 규정으로 있던 사찰등급조정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계종 재무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4월 24일까지 15일간.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이메일(cosmos@buddhism.or.kr)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분담금 책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등급을 대폭 축소했다. 본사는 기존 21개 등급을 7개로, 말사는 32개 등급을 12개로 줄였다. 사찰등급조정규정은 폐지하고 시행령에 별도의 장으로 반영했다. 또한 ‘기존종비’를 신설해 최하위 등급의 사찰에 적용했다. 말사 12등급(결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종비가 부과된다.

예산기준으로 적용하던 분담금은 최근 3년간 결산평균으로 적용해 현실성을 높였다. 특히 사찰 모든회계에 대한 결산총액이 아닌 일반회계의 순결산(차입금·이월금 제외)과 문화재구역입장료 30% 예치금 중 당해연도 순세입분을 합산해 결산등급으로 반영했다. 중앙분담금 인상과 인하 방법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찰과 사설 분담금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본·말사 사찰등급 대폭 축소
교구분담금위원회 구성 외에
인센티브제 반영… 탄력 운영
4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받아

사설사암(포교소 포함)은 등록년도 3단계로 구분해 요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교구분담금위원회를 구성해 교구분담금 배정 및 사찰등급 조정업무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과다한 목적불사 부과를 제한하기 위해 종단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인센티브제를 반영해 복지시설, 계층포교, 교육기관 우수 운영 및 재임기간 중 사찰등급을 상승시키는 곳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눈길을 끈다. 사찰등급조정시기는 3년 단위로 시행된다.

개정안 사찰등급과 분담률, 결산등급은 본사·말사기준 △1등급 4%(45억 이상)·3.5%(20억 이상) △2등급 3.5%(40~45억)·3.35%(15~20억) △3등급 3%(35~40억)·3.2%(12~15억) △4등급 2.5%(30~35억)·3.05%(9~12억) △5등급 2%(25~30억)·2.85%(7~9억) △6등급 1.5%(20~25억)·2.65%(5~7억) △7등급 1%(20억 미만)·2.45%(4~5억)다. 이하 말사등급은 △8등급 2.25%(3~4억) △9등급 2%(2~3억) △10등급 1.75%(1~2억) △11등급 1.5%(5천만~1억) △12등급 기본종비(5천만 미만)다.

재무부 관계자는 “법령이 1990년대 만들어지고 그동안 법대로 분담금을 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찰등급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것을 재정현황에 맞게 현실화 한 것”이라며 “공청회서도 법령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개정안 입법 시 변화 내용

사찰등급	본사 21등급 → 7등급 말사 32등급 → 21등급
분담률	본사 2~4%→1~4% 말사 1~4%→기본종비~3.5%
분담금 기준	기존 예산액 → 최근 3년간 결산평균
사설사암	등록년도 3단계로 구분해 요율 적용

–사찰등급조정 3년 단위 시행

94종단개혁 23주년 “조계종단 쇄신하라”

실승회·신대승, 종단개혁 정신 되새길 것 촉구

1994년 조계종단 개혁 23주년을 맞아 현 종단의 쇄신을 촉구하는 집행부 밖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대승네트워크가 4월 10일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현 종단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승회)는 “우리종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은 불교가 우리사회 최대 종교의 위치를 이웃종교에 내어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범계행위 및 금권선거 등 청정승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종단 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변화해야할 때다. 민주적 종단운영과 청정수행종단이란 종풍수호를 위해 우리 종단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해소해야한다”며 “총무원은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하고 엄정하게 종헌 종법을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승회는 최근 종단 안팎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해 대다수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선거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승회는 “중앙종회는 선원수좌회 등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무원장 직선제 특위 활동을 강화하고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강조
불법행위 대한 종법 집행도
사부대중 의한 종단운영으로
“대안 숙의하는 열린 광장을”

종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또한 직선제 특위의 문호를 종도들에게 다양하게 개방해 공히 ‘사부대중에 의한 종단운영’이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실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대승네트워크도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상기시켜 각자도생 문화를 척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자고 천명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94년 종단개혁으로 성립된 새 종단체제는 전근대적 제도, 관행, 폐단, 폭력의 유산이 퇴출되고 종무행정 시스템이 구비됐으며, 형식적이고 절차적 수준에서나마 새 정치와 제도(법)가 구현됐다. 사찰을 비롯해 종단의 재정도 훨씬 규모 커졌다”며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종단 체제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회피하고, 비판세력을 종단 밖으로 몰아내는 등 종권을 종헌종법에 부합하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탄했다.

이와 관련 34대 집행부 뿐 아닌 불교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며 진정성과 신뢰, 공유와 협동 체제로 나가기 위한 대안을 숙의하는 ‘열린 광장’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승려복지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상반기 5월 1일~31일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5월 1~31일, 하반기 10월 1~31일까지.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이다. 단 종단 미등록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월 1만8000원, 2019년 월 3만6000원이다. 신청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승정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02-733-3603)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726 윤호섭 기자

포교원 지정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 안내



포교원은 사찰의 현실적 조건 등으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사찰에 대하여,
신행불교대학 지정을 통해 신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사찰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행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제4조 5호에 의거하여 포교원회의 의결로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신행혁신운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임
- 명 칭 : ○○사 신행불교대학
- 운영주체 : 조계종 등록 사찰(포교소)
- 운영기한 : 2017년 6월 ~ 2018년 8월
- 지정대상 : 포교원은 사찰 시설이나 재정, 기타 조건이 어려우나 신도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사찰
- 지정요건
  1) 교육과정 : 6개월 ~ 1년
  2) 강사자격 : 조계종 승려 1인 이상(구족계 수지자)
  3) 입학생 자격 : 당해 사찰의 재적 신도
  4) 학생정원 : 제한 사항 없음
  5) 시설기준 : 제한 사항 없음
  6) 교과목 및 교육시간 :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시간은 72시간 이상으로 함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필수	불교개론	16시간	필수교과목 + 선택교과목 (72시간 이상 이수)
	부처님의 생애	16시간	
	신행혁신과 불자상	4시간	
선택	금강경의 이해	자율	
	불교문화·역사	자율	
	불교 신행(수행)	자율	
	봉사 활동	자율	

- 졸업특전 : 부동품계 품서, 포교사자격 고시 응시 자격 부여
- 신청서류 : 신행불교대학 신청서, 교과과정표, 강의계획서, 학생(입학예정자)명단 각 1부
- 서류 접수기간 : 2017년 5월 31일(수)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
  우편(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포교원 교화팀)
- 문 의 : 포교원 교화팀 주임 장혜정 02-2011-1905

※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홈페이지 → 종무행정 → 포교〉 게시판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 홍